

朝鮮後期の 東萊 郷班에 대하여

이 원 균

(부경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선후기 東萊地方의 郷權을 완전히 장악하여 郷内の 大小事를 주도하고 민중들을 이끌던 사회적 지배계층은 이른바 郷班이었다. 향반이란 원래는 그 신분이 官人層에 속하는 양반이었으나, 여러 대에 걸쳐 科擧를 통해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벼슬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寒微한 士族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향반은 이름만 사족이지 그 사회적 지체는 微微하여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東萊地方의 향반은 적어도 이 지방에서만은 다른 지방의 향반과는 달리 그 位相이 높았다. 왜냐하면 동래 지방은 역대로 과거에 급제한 자가 없어 단 한 명의 士大夫도 배출하지 못한 양반 없는 고을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지체가 낮은 郷班들이 郷權을 잡고 郷中을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수백년 간 동래의 향권을 잡고 이 지방을 이끌어 간 향반세력의 실체는 누구이며, 이들은 무엇을 통해 郷内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郷權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필자는 동래의 『郷案』을 비롯하여 『郷廳先生案拾遺錄』·『郷校經任錄』과 安樂書院의 『歷代任員錄』 등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 의문을 풀어 보려고 한다.

17세기 중엽 현종 때 동래부사가 된 安縝이 동래향교의 文廟 앞에 明倫堂을 重建하고 尤庵 宋時烈에게 記文을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동래부는 窮僻한 먼 남쪽 바닷가에 있어 백성으로서 능히 선비가 되는 사람은 매우 적고, 행여 있어도 그 記誦과 文詞를 익힌 것이 또한 다른 여러 고을에 끼일 수가 없다」¹⁾고 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래 고을은 글을 익히고 학문을 崇尚하는 풍토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고장에서는 내놓을 만한 선비도 없고, 선비가 없으니 科擧 특히 文科에 급제하여 양반관료가 된 자도 없었다.

1) 東萊府學 明倫堂記 『上之幾年 朝廷以安侯縝爲東萊府使 交事之初 卽修學政 重建明倫堂於文廟之前 以書來請記其事曰 此府僻在炎天漲海之際 其民之能爲士者甚少 幸而有之 而其記誦文詞之習 又不能齒於諸邑』

이러한 상황 아래 이 고장의 土着土族 즉 鄉班들은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양반관료로의 立身出世를 단념하고, 오로지 『鄉案』에 이름을 올려서 儒任과 鄉任을 맡아 鄉權을 장악하고 그 이력을 閥閥로 삼아²⁾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드러내고, 집안을 鄉中에 과시하려 하였다. 우선 향반으로서 인정을 받아 향중에서 행세를 하자면 그 이름이 『鄉案』에 登載되어야만 했다. 『鄉案』에 이름이 오르려면 어느 정도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서 鄉員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래에서 작성된 최초의 『향안』은 임진왜란 때 倡義起兵한 宋依仁·金廷瑞·金禹鼎·朴希根·金士偉 등 5명의 명단이 등재된 선조 31년(1598)의 『萬曆戊戌案』이었다. 이로부터 영조 14년(1738)에 『영조무인안』이 작성될 때까지 10차에 걸쳐 향안이 작성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제 10차에 걸쳐 작성된 『鄉案』에 등재된 인물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동래 향안 성씨별 입록자 수(1598~1738)

번호	성씨	인원수	백분율	번호	성씨	인원수	백분율
1	南平文氏	23	15.9	13	廣州金氏	3	2.1
2	竹山朴氏	15	10.3	14	月城朴氏	3	2.1
3	礪山宋氏	12	8.3	15	靈山辛氏	2	1.4
4	慶州金氏	12	8.3	16	玄風郭氏	2	1.4
5	東萊鄭氏	11	7.6	17	海州吳氏	2	1.4
6	江陵金氏	9	6.2	18	密陽孫氏	1	0.7
7	淸道金氏	9	6.2	19	梁山李氏	1	0.7
8	慶州李氏	7	4.8	20	本貫未詳의 金·鄭·朴· 李·文·宋氏	13	9.0
9	寧越辛氏	6	4.1				
10	恩津宋氏	5	3.4				
11	仁川李氏	5	3.4				
12	南原梁氏	4	2.8	계		145	100

2) 『東萊鄉廳考往錄』 三鄉任遞任稟目 『本鄉 僻在遐陬 元無官旻 只以儒鄉之任履歷爲其閥閥』

<표 1>에 의하면 향안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145인데, 이들의 姓氏는 本貫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그 수가 모두 19개의 氏族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남평 문씨·죽산 박씨·여산 송씨·경주 김씨·동래 정씨 등 5개 씨족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4%를 차지하고, 강릉 김씨·청도 김씨·경주 이씨·영월 신씨·은진 송씨 등 5개 氏族이 거의 1/4에 육박하는 24.7%를 점하고 있어 이들 10개 씨족이 전체 동래 향반의 3/4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조 14년(1738) 이후에는 향안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鄉案』에 이름이 등재된 향반들은 鄉校의 校任이나 書院의 院任 같은 儒任과 鄉廳의 職任인 鄉任을 맡아 鄉論을 주도하고 鄉權을 장악하려 하였다. 우선 향교의 교임으로는 향교를 대표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는 首任인 都有司·校長과 副任으로서 향교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掌議 2명과 校生을 지도하는 교수직인 都訓長과 訓長이 있었다. 이들 교임은 향청·향교·서원의 수임을 역임한 자들로 구성된 堂會에서 천거하면 官長인 東萊府使가 임명하게 되어 있었으며, 임기는 대체로 1년이었다. 당회에서 교임을 천거할 때면 향반들은 서로 추천을 받기 위해 父兄과 子侄들이 당회가 열리고 있는 향교에 몰려와 문제를 일으켜 처벌이 논의되기까지 하였다³⁾.

동래 향교의 역대 교임의 이름이 실려 있는 『經任錄』은 인조 12년(1634)부터 고종 9년(1872)까지 작성되었으나 그 사이에 빠진 것이 많아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제 『경임록』에 의거하여, 1910년 일제강점 때까지 동래 향교의 교임 중에서 수임인도

3) 『東萊鄉校考往錄』 壬申 5月 12日條 『首副任薦報時 若有子侄爲父兄事入來者 及父兄爲子侄入來者 則當從公議施罰爲於……』

유사·교장을 비롯하여 부임인 장의와 교수직인 도훈장·훈장을 지낸 인물들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동래 향교 『經任錄』에 실린 교임의 성씨별 인원수

(단위 : 명)

번호	성 씨	도유사 · 교장	장의	도훈장 · 훈장
1	南平文氏	24	23	11
2	慶州金氏	15	14	14
3	東萊鄭氏	11	12	5
4	竹山朴氏	7	8	4
5	玄風郭氏	7	9	6
6	月城朴氏	5	14	1
7	慶州孫氏	5	2	-
8	礪山宋氏	4	8	4
9	密城朴氏	4	4	-
10	錦山金氏	3	4	-
11	慶州李氏	2	2	-
12	淸道金氏	2	2	4
13	靈山辛氏	2	3	-
14	金海金氏	2	-	-
15	寧越辛氏	1	5	-
16	迎日鄭氏	1	1	-
17	仁川李氏	1	-	-
18	車城李氏	1	1	-
19	江陵金氏	1	4	-
20	延安李氏	-	2	-
21	潁陽千氏	-	1	-
22	達成徐氏	-	1	-
23	潭陽田氏	-	1	-
24	密陽朴氏	-	3	-
25	昌原金氏	-	1	-
26	中和楊氏	-	1	-
27	廣州金氏	-	-	1
28	本貫未詳	1	20	-
	계	99	146	50

<표 2>에 의하면 향교의 首任인 都有司·校長을 지낸 사람은 모두 99명인데 이 중에서 본관이 밝혀져 있지 않은 1명을 제외하면 그들은 모두 19개 씨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평 문씨·경주 김씨·동래 정씨·죽산 박씨·현풍 곽씨 등 5개 씨족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6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副任인 掌議는 전체 146명 중에 본관 미상인 20명을 제외한 126명은 24개 씨족에 속해 있다. 이 중에서 남평 문씨·월성 박씨·경주 김씨·동래 정씨·현풍 곽씨 등 5개 씨족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9.3%를 차지하였으며, 교수직인 都訓長과 訓長은 9개 씨족에서 50명을 배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경주 김씨와 남평 문씨가 꼭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동래 향반은 이 고장에 있는 유일한 서원인 安樂書院의 원임을 맡아 서원에 출입하는 것을 士族으로서의 영예로 생각하는 동시에 향중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家門을 남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안락서원은 원래 선조 38년(1605) 동래성의 남문 안에 임진란 때 동래성을 死守하다 殉國한 동래부사 宋象賢을 모시기 위해 세운 忠烈祠를 효종 3년(1652)에 安樂里로 옮기면서 宋公의 학행과 충절은 후학의 師表가 되므로, 이를 높이고 후학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 규모를 확장한 데서 시작되었다.

『東萊郷校誌』에 실려 있는 안락서원의 『역대임원록』에는 현종 7년(1666)부터 임원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후 200년간은 기록이 너무나 부실하여 별로 참고가 되지 않고 고종 5년(1868)부터 지금까지는 빠짐없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제 『역대임원록』에 의거하여 1910년 일제강점 때까지의 안락서원 원임 중에서 院長을 지낸 인물을 성씨별로 인원수의 다소에 따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역대 안락서원 원장 성씨별 인원수

(단위 : 명)

번호	성씨	인원수	번호	성씨	인원수
1	慶州金氏	25	11	迎日鄭氏	1
2	南平文氏	18	12	仁川李氏	1
3	竹山朴氏	6	13	密陽朴氏	1
4	東萊鄭氏	5	14	靈山辛氏	1
5	慶州孫氏	5	15	梁山李氏	1
6	月城朴氏	3	16	錦山金氏	1
7	淸道金氏	2	17	海州吳氏	1
8	慶州李氏	1	18	密陽孫氏	1
9	寧越辛氏	1	19	本貫未詳	1
10	江陵金氏	1	계		76

〈표 3〉에 의하면 안락서원의 원장을 지낸 사람은 모두 76명인데, 이 중에서 본관이 밝혀져 있지 않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18개 씨족에 속하는 자들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경주 김씨와 남평 문씨는 56.5%를 차지하는 43명을 배출하여 단연 선두에 서 있었고, 죽산 박씨와 동래 정씨·경주 손씨는 전체의 21.0%인 16명을 배출하여 2위 그룹을 차지하였으나 선두 그룹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편 『鄉案』에 이름이 올려진 향반들은 향청의 직임인 향임을 맡아 향내의 紀綱을 확립하고, 지방 사정에 어두운 수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그 권한을 견제하기도 하였으며, 鄉吏를 감시·감독하여 賦稅의 올바른 부과와 징수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鄉任은 적잖은 권한과 힘을 갖고 있었으며, 그 임원은 首任인 座首와 副任인 別監 2명이 있었고, 그 임기는 대체로 2년이었지만 수령이 교체되면 바뀌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좌수와 별감의 임명은 처음에는 전직 향임들이 圈點制로써 직접 선출하여 수령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었으

나, 후에는 권점제를 폐지하고 전직향임들이 추천한 후보자 3인 가운데서 수령이 1명을 선택하여 임명하는 擬望制로 바뀌었다.

또 동래 향반의 鄉權에 대한 관념은 鄉廳 위에 鄉會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향회는 향원 가운데서 선발된 향임들의 모임으로, 그 회장격인 鄉首와 그 밑에 鄉公事員을 두었는데, 향수는 과거에 좌수를 지낸 자들이 번갈아 맡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향수를 수장으로 하는 향회는 향반 사족들이 수령의 지나친 횡포와 향리의 농간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민중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향반들의 실질적 최고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

동래 향청의 향임과 향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鄉廳先生案』은 그 보존·관리가 부실하여 제대로 전해오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유실된 것을 대충 수습하여 엮어 놓은 것이 『鄉廳先生案拾遺錄』이다. 이 『拾遺錄』은 선조 41년(1608)에서 20세기 초 고종 말년까지 수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빠진 것이 많고, 숙종 45년(1718)에서 영조 10년(1734)까지와 영조 49년(1773)에서 정조 11년(1787)까지, 순조 29년(1829)에서 현종 5년(1839)까지 철종 11년(1860)에서 고종 6년(1869)까지, 광무 5년(1905)에서 1910년 일제강점까지는 단순히 이름만 있고 임명 연대와 직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향청과 향회의 직임을 알 수 없다.

이제 『동래향교지』에 수록된 『향청선생안습유록』에 의거하여 향임인 좌수·별감과 향회의 향수·향공사원을 구분하지 않고 한 데 합쳐서 성씨별 인원수의 다과에 따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향청·향회 임원의 성씨별 인원수

(단위 : 명)

번호	성씨	인원수	번호	성씨	인원수
1	南平文氏	59	15	恩津宋氏	4
2	慶州金氏	51	16	靈山辛氏	3
3	竹山朴氏	23	17	密陽朴氏	2
4	礪山宋氏	22	18	錦山金氏	2
5	慶州李氏	16	19	廣州金氏	1
6	月城朴氏	15	20	昌原黃氏	1
7	東萊鄭氏	14	21	海州吳氏	1
8	寧越辛氏	14	22	中和楊氏	1
9	江陵金氏	8	23	慶州崔氏	1
10	淸道金氏	8	24	密陽孫氏	1
11	玄風郭氏	7	25	梁山李氏	1
12	仁川李氏	6	26	本貫未詳	22
13	迎日鄭氏	6			
14	慶州孫氏	5		계	294

<표 4>에 의하면 鄉廳과 鄉會의 首任과 副任을 지낸 사람은 모두 294명인데, 이 중에서 본관이 밝혀지지 않은 22명을 제외하면 모두 25개 씨족 출신자들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남평 문씨와 경주 김씨가 전체의 37.0%인 110명을 배출하여 단연 선두에 서 있었고, 죽산 박씨·여산 송씨·경주 이씨 등 3개 씨족은 전체의 20.7%인 61명을 배출하여 2위 그룹을 이루고 있었으나 선두 그룹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鄉案』에 등재된 인물을 비롯하여 향교의 교임, 서원의 원임, 향청의 향임은 그 반수 이상이 각각 5개 씨족 출신이었다. 이제 『鄉案』에 등재된 인물과 교임, 원임, 향임을 배출한 인원수의 다소에 따라 각 씨족의 등위를 1위에서 5위까지로 정하고, 이 5개 씨족이 배출한 합계 인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鄉案』에 등재된 인물 : 50.4%

①남평 문씨 ②죽산 박씨 ③여산 송씨, 경주 김씨 ⑤동래 정씨

(나) 향교의 도유사·교장 : 64.6%

①남평 문씨 ②경주 김씨 ③동래 정씨 ④죽산 박씨, 현평 곽씨

(다) 향교의 장의 : 49.3%

①남평 문씨 ②월성 박씨, 경주 김씨 ④동래 정씨 ⑤현평 곽씨

(라) 향교의 도훈장·훈장 : 80.0%

①경주 김씨 ②남평 문씨 ③현평 곽씨 ④동래 정씨 ⑤여산 송씨

(마) 안락서원 원장 : 76.6%

①경주 김씨 ②남평 문씨 ③죽산 박씨 ④동래 정씨, 경주 손씨

(바) 향청 좌수·별감, 향회 향수·향공사원 : 57.5%

①남평 문씨 ②경주 김씨 ③죽산 박씨 ④여산 송씨 ⑤경주 이씨

위와 같이 남평 문씨는 (가)(나)(다)(바)에서 1위, (라)(마)에서 2위를 차지하여 단연 전체에서 1위, 경주 김씨는 (라)(마)에서 1위, (나)(다)(바)에서 2위, (가)에서 3위를 차지하여 전체 2위, 죽산 박씨는 (가)에서 2위, (마)(바)에서 3위, (나)에서 4위를 차지하여 전체 3위, 동래 정씨는 (나)에서 3위, (다)(라)(마)에서 4위를 차지하여 전체 4위, 여산 송씨는 (가)에서 3위, (바)에서 4위, (라)에서 5위를 차지하여 전체 5위가 되었다. 다만 여기서 (라)에서 3위, (나)에서 4위, (다)에서 5위를 차지한 현평 곽씨와 (다)에서 2위를 차지한 월성 박씨, (마)에서 4위를 차지한 경주 손씨, (바)에서 5위를 차지한 경주 이씨는 모두 전체 5위에는 들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남평 문씨·경주 김씨·죽산 박씨·동래 정씨·여산 송씨 등 5개 씨족은 조선 후기 동래 향반을 대표하는 씨족이라 할 수 있다. 南平 文氏는 高麗 進士 文萃의 후손인데, 萃은 三憂堂 益黈의 손자로 고려가 멸망하자 동래에 들어와 隱居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동

래에 살게 되었으며, 慶州 金氏는 翰林을 지낸 金秀文의 후손으로 樹隱 沖漢의 증손인데 秀文이 세조 원년(1455)에 동래에 귀양살이를 함에 따라 그 후손들이 동래에 살게 되었다. 竹山 朴氏는 忠貞公 朴奇梧의 후손인 天樞가 星州에서 옮겨와 살았으므로 그 자손이 동래에 살게 되었으며, 天樞는 임진란 때 倡義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東萊 鄭氏는 고려 때 鄭文道の 후손으로 대대로 동래에 살아온 本貫 姓氏이며, 礪山 宋氏는 고려 때 元尹을 지낸 宋暉의 후손인 訓練院 參軍을 지낸 克明의 자손으로, 克明이 端宗妃 定順王后 송씨의 친족이었으므로 화를 피해 동래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여기서 살게 되었다.

이들 5개 씨족들은 조선 후기 수 백년간에 걸쳐 동래의 鄉校와 書院의 職任인 儒任과 鄉廳의 職任인 鄉任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鄉權을 잡고 鄉論을 주도하면서 鄉民들을 이끌어 갔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동래 지방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이들 鄉班士族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작업이라 하겠다.